

아버지를 잃으면 평생이 외롭고 어머니를 잃으면 평생이 슬프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순간 이 헛헛함이 무엇일꼬 하다가도 무심히 흘러가다가 아, 이런 느낌이나 하고 끄덕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의 빈자리.

자리에 누워계시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더러는 아버지로서는 조금 함량미달인 듯 보여지는 대화의 단순성을 보이면서도 세계적 정치, 경제 흐름의 해안을 놓치지 않으셨던 유머러스하고 학구적이셨던 멋진 남자를 잃은 쓸쓸함.

나와 결혼한 남편은 당연히 아버지 같은 남자일 줄 알았다가 전혀 빛깔이 다른 사람이라, 그 개성을 인정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날들을 가슴앓이로 소모했던 어리석었던 신혼이 생각납니다.

대구시청 앞에서 대서사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1965년 거진으로 이사 오신 뒤 많은 사람들의 문서서류작성을 도와주셨고 그 일은 고성군에서 그 당시 복덕방 1호 허가를 받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김향숙 칼럼

칼럼위원(시인)



## 아버지 생각에 외로운 날

외출하실 때는 잿빛 두루마기를 즐겨 차려 입으셨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기품 있으셨던 아버지는 수많은 사업을 거쳐 오시면서 삼년이 지난 외상값장부를 매년 연말마다 불태우시며 탕감해 주셨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와 물질적 숨은 도움으로 구제하셨습니다.

잊고 나면 더욱, 함께 하였던 지난날들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음이 아쉬워지는 게지요. 얼굴색 하나 안 바꾸시면서도 짧은 순간적인 위트와 어록들은 평생에 남은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남기신 선

물이 되었습니다. 만팔이라 더욱 친구같이 대해주셨던 수많은 긴 밤들의 대화가 그립고, 한겨울 눈이 내리는 날 명파 제진역에 모시고 가서 차 안에서 찍어드렸던 아버지의 목도리 두르신 옆모습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이 납니다.

돌아가시면 개봉하리시며 자녀들에게 남기신 아버지의 편지 같은 유서를 가족들과 함께 읽으며 우리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어깨에 얹혀 진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 외로움과 고단함을 자주 헤아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이겠지요.

요즘 이런 시 하나를 써 보았습니다.

#### 엄마의 웃음

우리 엄마 웃으시는 게 보기 좋아 나는 자꾸 출렁거리고

엄마 옆에 누우면 낮잠도 달다

큰 성경 읽으시다 돋보기 너머로 물으신다 '너 지금 몇 살이나 됐지?' '엄마, 나 신아홉' '아이구, 벌써 그렇게나 됐어?' '그럼, 손자가 벌써 돌이 지났는걸'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리고 보니 나는 손자 앞에서 출렁거리다 엄마도 나 어릴 적 웃는 걸 보시려고 나처럼 그렇게 출렁출렁 웃으셨겠지

아기 적 내 생각이 나신 걸까 해맑게 웃으시는 우리 엄마 참 귀여우시다

가끔 심장에 손을 얹어봅니다.

'살아있음' 잘 키워주셔서 예전엔 어려서 행복했었고 또 젊어서 행복 했었던 것처럼 호호할머니로서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순행하는 세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 역시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죽어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나는 자주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마저도 아름다워 어쩌면 내가 이 외로움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람되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세요.



### 기고

## 긴급하지 않은 구조요청 이제 그만

최근 속초 지역에서 고양이 구조를 나갔던 119구조대원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더욱 가슴 아팠던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출동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 소방은 그동안 국민의 사랑과 성원으로 성장하여 왔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도 있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소방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냉정

히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9월 6일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8일 제정·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긴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짧은 시간에 소방이 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으나 아직 국민의 요청에 100% 대응하기에 제도와 여건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문잠김이나 단순동물포획 같은 긴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과 응급하지 않은 구급신고는 꼭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의식이 이제는 필요하다.

선진국에 다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에 소

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국민의 협조와 응원이 있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 또한 더 보람된 모습으로 본연의 직무에 임하게 될 것이다.



김 록 기  
속초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장

## 설악산 단풍 언제 볼 수 있나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기온과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며, 일교차가 크면 단풍이 빨리 든다. 좋은 단풍을 보려면 적정 수준의 강수량도 중요하다.

강수량이 적으면 단풍이 들기 전에 잎이 말라버려 낙엽이 돼 버리고, 또 강수량이 많으면 잎이 일찍 떨어진다. 즉, 가

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환경적 인자는 온도, 햇빛, 수분공급이며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하늘은 청명하며 일사량이 많다면 가장 좋은 색채의 단풍을 볼 수 있다.

기상청은 이 같은 기상정보를 종합해 매년 단풍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단풍시기는 산 전체 높이로 보아 20% 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 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 설악산 단풍은 언제 볼 수 있을까?

9월 중순이후 늦더위로 인해 설악산의 단풍은 최근 20년 평균보다 5일 늦고, 작년보다는 2일 빠른 10월 3일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월 중순부터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

풍절정은 예년보다 빠른 10월 18일경이 예상된다.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10월 1일부터 강원도 주요 산에 대한 상세 기상예보와 함께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계족산에 대한 단풍실황정보도 제공하니, 단풍구경을 위한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방문해 도움이 되는 자료도 확인해 보자.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속초기상대 제공